'민선 8기['] 광주·전남 운영 과제는

"6개월 안에 해답 찾겠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지난 6.1지 광주시 방선거 경선 때부터 지역 현안의 신속한 해 결을 약속해 왔다.

강 당선인은 "광주 현안에 대해 6개월 안에, 빠르게 답 을 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장 큰 현안은 전남과의 협력이 절실한 군 공항 이전 이다.

강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광주 상생정책협 약식'을 갖고 '군공항 이전 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협 력하기로 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밑그림도 내놨다.

강 당선인은 민·관 주도의 '수익형 특화관광단지' 방식 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우치공원 동물원을 어등산에 사파리 형태로 이전하는 연계 개발 방식을 통한 테마파크 조성를 제안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법 제정 어등산 민 관 진행

케이블카는 중립…지산 IC 추진 속도

강 당선인은 무등산 국립공원의 보호 보존을 원칙으로 여론을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존 탐방로에 친환경수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히며 쇼핑, 문화, 여가를 한 곳에 아우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반발을 극복 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

지산 나들목(IC) 개통은 강 당선인이 가장 해결이 시급 한 현안으로 꼽은 문제다.

강 당선인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 서, 광주시도 전용차로 도입과 추가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비전·공약 점검 현안 해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으 전남도 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국립의과 대학 유치는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과 중증질 환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전국 99개 응급 의료 취약지역에 17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2020년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이어지면서 전 남권에도 의과대학이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의료계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은 코로나 19가 안정화된 이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논의 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 68만 3,000㎡에 활주로 를 포함한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은 건설 부지가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환경부 국립공원심의 원회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흑산공항과 관련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는 "흑산공항은 그간 99를 준비해 왔으며, 마지막 1이 남아있는 상황. 다 된거나 마찬가지다"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공항건설이 안된다는 것은 지나친 원칙주의다. 대안을 모색해 대체부

국립의대 신설 논의조차 중단'빨간불' 흑산공항・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등 중점

지까지 마련된 만큼 잘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기

이밖에 전남도의 핵심 현안으로는 ▲초강력 레이저 연 구시설 구축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우주발사 체산업 클러스터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등이 꼽힌다.

한편,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의 비전 · 공약위원회가 첫 회 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공약은 도지사 선거공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잠정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8대 분야 24 정책과 제 113개 세부 실천과제다.

발굴된 비전과 공약, 정책과제는 분과위에서 충분히 검 토하고,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논의 환정한다.

/길용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이 13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는 공직 선거법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광주 무투표 당선인들 "단독 후보도 선거운동 허용해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지난6·1지방선거광주지역에서무 투표로 당선된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 인 등 12명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 한 경우 선거 운동을 중단하도록 한 공 직선거법 제27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 규정 때문에 유권자 와의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 벽보도, 유 권자에게 우리를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 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 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 법'"이라고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목적이 선거비용 절감에 있다 고 해도 선거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하거나 선거 운동복 착용과 명함 교부 등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ㅋ자의 알릴 권리를 충 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 선인과 광주시의원 당선인 11명이 참여 했다. /오선우 기자

지역 국회의원 후반기 상임위 배치 윤곽

특정 상임위 쏠림 심화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2년간 광주·전남 의 원들이 활동하게 될 상임위원회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상임위에 쏠림 현상이 심하면서 지역현안 해결이나 미래 먹거 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후 반기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는 전반 기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산위원회에 집중되고 국방위원회와 환 경노동위원회는 지원한 의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에 비해 지역 현안 해결이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상 임위는 꺼리고 있어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가 5명으로 가장 많아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국토 교통위원회 2명, 산업통산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 2명, 법제사법위원회 2 명, 교육위원회 2명, 문화체육관광위 원회 1명, 행정안전위원회 1명, 과학기 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명, 보건복지 위원회 1명, 정무위원회 1명 등이었 다.

후반기 역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5명이 지원했다. 서삼석(영암 ·무안·신안)의원과주철현(여수갑)의 원, 김승남(고흥·보성·강진·장흥)의 원, 윤재갑(해남·진도·완도)의원이 전 반기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 다. 여기에 신정훈(나주·화순)의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1지망 으로 선택했다.

최고 인기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원회는 조오섭(광주 북구갑)의원과 이 병훈(광주 동남을)의원, 김회재(여수 을)의원이 각각 1순위로 지망했으나 조 오섭 의원과 김회재 의원이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훈 의원은 국토 교통위원회를 양보하고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인기상임위인 산업통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는 기존의 송갑석(광주 서구갑)의원과 새롭게 윤영덕(광주 동 남갑)의원, 이용빈(광주 광산갑)의원 이 각각 1순위로 지원했으나 송갑석 의 원과 윤영덕 의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용빈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국방위원회가 거론되고 있다.

행정안정위원회는 전반기와 마찬가 지로 이형석(광주 북구을)의원과 더불 어 새롭게 이개호(영광·함평·장성·담 양) 의원이 활동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민형배(광주 광산을)의원도 전반기 와 마찬가지로 정무위원회에서, 김원이 (목포)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 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도 교육 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 원은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반 기 에는 정무위원회를 제1지망으로 선 택 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로 '솔라시도로' 명명

전남도는 해남 산이면 대진리와 영암 삼호읍 서호리를 잇는 영암·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에 '솔라시 도로'라는 광역도로명을 부여했다.

해남과 영암 일원에 에너지 중심의 정 원도시형 스마트 도시인 구성지구, 골 프중심의 관광레저도시인 삼호지구, 미다. 래형 자동차 융복합산업 밸리인 삼포지

조성되고 있다.

입도로는 총 길이 10.83km(왕복 4차 11월 개통 예정이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선)이며 도로 구간의 시작지점은 해남 산이면 대진리(대진교차로)이고, 끝 지점은 영암 삼호읍 서호리(서호IC)

진입도로 구간 중 영암호를 가로지르

구로나눠총사업비 3,012억원 규모로 는 횡단교(2.21km)가 있고, 횡단교 명 칭은 올 1월 공모절차를 거쳐 '솔라시 기업도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 모대교'로 선정했으며, 진입도로는 올

> 둘 이상 시군에 걸친 도로의 경우 도 관리 광역도로로 해당 지자체장 의견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전남도주소정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고시한다.

> > /길용현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이념으로 최고 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어르신 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지역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NAVER निर्माशेश्वा विशेषा • हे त्रिप्रमाधि